

우리나라 사회과교육과정의 통합구조 변화에 따른 지리교육의 목표와 내용 변화: 중학교를 중심으로

박선미*

The Changes in Goals and Contents of Geography Education according to the Structural Change of Integration in the Korean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 Case of the Middle School

Sunmee Park*

요약 :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지리교육의 목표와 내용 변화를 통합구조와 수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요목기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사회과교육의 지리, 역사, 일반사회는 분과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의 실질적 통합 요구가 강해졌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역사가 사회과교육과정으로부터 과목 독립하고, 학년마다 배치되었던 학제적 통합 단원도 사라지는 등 통합교과로서 사회과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와 일반사회만으로 구성된 중학교 사회과의 기형적 통합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둘째, 사회과 통합에 대한 요구가 강할수록 각 학문영역 간 시수 확보 경쟁 또한 치열해져 학습자의 학습 부담도 증가했다. 그리고 중학교 사회과 통합구조는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간극을 점차 벌렸고, 지식과 학생 경험의 괴리도 넓혔다. 이처럼 중학교 사회과 통합구조는 지리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조직의 상위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미 있는 지리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주요어 : 사회과교육과정, 지리교육과정, 중학교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사회과 통합구조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s of goals and contents of middle school geography education following up the changes in the Korean social studies curriculum over tim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Syllabus period to the Third Curriculum, geography education, history education, general social studies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were directed and managed independently. However from the 4th to the 7th Curriculum, the demand for the virtual integration in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increased sharply. Since 2009 revision, social studies suffered an identity crisis as integrated subject matter because history education was separated from the social studies and interdisciplinary units were abolished. In spite of much criticism, however, an odd form of social studies integrating geography and general social studies still remains. Second, the stronger the demand for the social studies integr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social studies learning load had become heavier due to severe competition with other areas to ensure more portion in the integrated structure of social studies. Since geography education did not reflect the new tendency of the geography in the integrated structure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he gap between the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has increased and knowledges of geography growing became separated from students' experience. In conclusion, the integrated structure of social studies in the middle school hin-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nha University), sminha@inha.ac.kr

dered the geography education development as it limited the autonomy of geography education in terms of curriculum development.

Key Words : social studies curriculum, geography curriculum, middle school curriculum, integrated curriculum, integrated structure of social studies

1. 서론

사회생활과가 도입된 교수요목기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지리는 사회과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학문영역 중 한 영역으로 다뤄져 왔다. 사회과교육과정에는 교육부 정책 담당자, 교육과정 총론 연구자와 사회과 교과연구자, 그리고 사회과를 구성하는 하위 학문영역 간에 복잡하고 미묘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은 기형적이고 불안정한 통합구조로 인한 학문영역 간 이해관계의 대립 문제가 다른 학교급보다 심각하고, 사회과의 통합구조는 중학교 지리교육의 목표와 내용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은 사회과교육과정과의 관계, 특히 통합구조와 수준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교육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심광택(2015)은 1963~2015년 동안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지리교육논문 102편과 1993~2015년 동안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에 게재된 지리교육논문 406편을 대상으로 지리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지리교육과정을 주제로 한 연구가 165편(32.5%)으로 지리교육의 다른 분야보다 많았다. 지리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리교육의 방향, 과목별·학교급별 지리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 특정 시기의 지리교육과정 특성과 운영, 지리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평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는 다른 주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 사회과 성립 과정과 그 변천에 관

한 박광희(1963)의 연구, 1950년대 지학의 등장과 지리교육과정의 변화를 분석한 안종욱(2011)의 연구, 교수요목기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경제지리」 과목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를 탐구한 안종욱(2012)의 연구, 교수요목기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의 초·중·고 지리교육의 편제, 목표와 내용을 정리한 박정일(1979)의 연구, 교수요목기부터 제4차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지리과 교육과정의 편제, 목표와 내용의 변천 과정을 정리한 심풍언(1986)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우리나라 초등 지리교육과정의 변화를 분석한 심승희(2008)의 연구, 제6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경제지리 교육 내용 구성의 변화 과정을 정리한 조성욱(2014)의 연구 등 특정 학교급 혹은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도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과교육과정의 통합구조와 수준에 따라 변화가 많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리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이후 약 70년이 지난 현재,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변천 과정과 그에 따른 지리교육과정의 변화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문서와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교수요목기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각 시기별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통합구조와 수준에 초점을 맞춰 지리교육의 편제, 목표 및 내용 조직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통합교육과정으로서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의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 및 지리교육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수요목기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과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정리한 강

대현(2015)은 사회과교육 도입기(교수요목기~제2차 교육과정), 사회과교육 전개와 변화기(제3차 교육과정~제5차 교육과정), 사회과교육 발달과 혼란기(제6차 교육과정~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교육 분화와 해체기(2007 개정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로 시기 구분을 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의 통합구조와 수준의 차이를 기준으로 분과적 성격이 강했던 사회과교육 형성기(교수요목기~제3차 교육과정), 사회과 통합 요구가 강해진 사회과교육 전개기(제4차 교육과정~제7차 교육과정), 통합 사회과로서 사회과교육 정체성이 흔들린 사회과교육 혼란기(2007 개정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로 시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2. 사회과교육 형성기의 중학교 지리교육

1) 교수요목기의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과 지리교육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조선총독부의 조선교육령에 따른 식민주의 교육을 청산하고 민족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을 담당할 새로운 교육과정의 제정이 필요했다. 1946년 9월 각급 학교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 기준을 정하고 초등학교 규정을 제정 발표하였다. 그리고 1년 후인 1947년에 중등학교의 교수요목을 발표하였다.¹⁾ 교수요목이 발표되고 학제가 6-6-4제(국민학교-중학교-대학교)로 개편되면서 지리, 역사, 공민 등으로 편성된 ‘사회생활과(social studies)’라는 교과가 신설되었다.²⁾

사회생활과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을 가르치는 교과로 규정되었다. 교수요목집은 사회생활과의 교수 목적으로 사람과 자연 환경 및 사회 환경과의 관계를 밝게 인식시켜서 사회생활에 성실 유능한 국민이 되게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군정청 문교부, 1946, 3). 국민학교, 초급중학교(중학교)와 고급중학교(고등학교)에서 사회생활과

를 필수교과로 매 학년마다 매주 4~6시간씩 가르치도록 명시함으로써 의견상으로는 새로운 통합교과로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곽한영, 2010, 9). 지리교육은 해방 이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공민, 역사 등과 함께 사회생활과로 편제되었다.

국민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집은 지리, 역사, 공민의 종합이 사회생활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과를 구성하는데 지리, 역사, 공민의 종합이 필요할 뿐이라고 사회생활과라는 교과와 관련 학문 간 관계를 규정하였다. 이는 사회생활과를 구성하는 여러 학문적 지식이 사회생활과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할 경우 이를 적절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미군정에 의해 도입된 사회생활과의 통합 교과로서의 성격은 한국적 이론이나 통합적 내용 조직의 실천적 경험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교육과정상의 문구로 사문화되었다.

이 요목은 하급 학년에서는 주로 일상적인 교장 생활을 다루고, 상급 학년에 이르러서는 역사, 지리, 공민이 종합되어 있다. 이것은 역사, 지리, 공민의 종합이 사회생활과가 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생활과에 역사, 지리, 공민의 종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종합은 사회 생활의 고찰 및 체험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종래의 분과적 관념을 가지고서 사회생활과에 역사, 지리, 공민을 집어넣으려면, 그 종합에 부자연성이 생기기 쉬울 것이니, 특히 주의하여서 사회 생활의 구명을 기본으로 하여 적절하게 지리, 역사, 공민을 다루기를 바란다. -군정청·문교부, 1946, 초중등학교 각과교수요목집(4) 국민학교 사회생활과 중에서-

초급중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 편제와 수업시수를 보면 국민학교와 달리 지리, 역사, 공민의 세 부분을 매 학년 교수하도록 한 ‘川’자형 분과 체제로 구성되었다. 지리는 중학교 모든 학년에서 매주 2시간씩 배우도록 되었다. 이처럼 사회생활과 내에 지리, 역사, 공민이 각각 뚜렷한 구획을 두고 독립된 교과처럼

교육되었기 때문에 사회생활과는 도입 초기부터 외형상으로는 통합을 추구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분과형을 나타냈다(박정일, 1979, 335).

미군정 때 제정된 국민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만 그보다 약 1년 후에 제정·공표되었다고 하는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은 남아 있지 않다(박광희, 1965, 57). 그러나 당시 중학교 지리교과서 서문을 보면 중학교 사회생활과의 교육 목적은 국민학교 사회생활과의 교육 목적과 동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정일, 1979, 335). 국민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집에 사회생활과 교수 목적과 교수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는 세 번째 교수 방법은 당시 지리교육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했다. 당시 지리교육에 영향을 끼친 지리사조는 라첼(F. Ratzel)의 환경결정론으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을 더 강조하였다(박정일, 1979, 336).

박광희(1963)에 의하면 초급중학교 지리교육 목표는 “우리나라의 생활은 물론 서로 다른 특질을 가진 동·서양 내지 세계 전체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교수하지만, 국토의 자연환경과 인문조건을 체득시켜, 현재의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의 지위와 사명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다. 즉, 우리나라와 동·서양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국토의 자연환경과 인문조건을 이해하는 것을 중학교 지리교육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교수요목기 초급중학교 지리교육과정은 주로 지역 지리를 중심으로 1학년의 「이웃나라 생활」, 2학년의 「먼 나라 생활」, 3학년의 「우리나라 생활」로 구성되었다. 내용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년 「이웃나라 생활」은 아시아를 ‘동부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서북아시아’로 지역 구분하여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하였고, 2학년 「먼 나라 생활」은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양극지방’으로 지역 구분하여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하였다(홍용선, 1992). 「먼 나라 생활」에서 유럽 지역에 관한 내용이 전체 내용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박정일, 1979, 336). 3학년 「우리나라 생활」은 계통적 주제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나라의 자연 특색」, 「우리나라의 인구와 취락」,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의 전형」, 「우리나라의 사회와 정치의 개관」이라는 6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홍용선, 1992).

2) 제1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과 지리교육

1955년에 공표된 제1차 교육과정은 한국전쟁 중에 개발되었다. 1949년에 제정되고 1950년 개정된 교육법에 의해 학제가 6-3-3제(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개편되자 ‘각급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제1차 교육과정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교육과정 개발은 미뤄졌다. 1952년에서야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제정을 위한 교과과정 연구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고, 1953년 휴전이 조인된 후 1954년에 문교부령 제35호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과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발표되었다. 공표된 기준령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과별 시간 배당과 기본 원칙이 결정

표 1. 교수요목기의 중학교 사회생활과 주당 시간배당기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시간 배당 기준	이웃나라 생활: 지리(2)	먼나라 생활: 지리(2)	우리나라 생활: 지리(2)	매 학년 3영역을 모두 배우는 '川'자형 내용 조직
	우리나라 생활: 역사(2)	먼나라 생활: 역사(2)	우리나라 생활: 역사(2)	
	공민생활 I: 공민(1)	공민생활 II: 공민(1)	공민생활 III: 공민(1)	

*35주를 기준으로 함.
자료: 홍용선, 1992, 39.

된 후 1955년에 각급 학교 교과별 교과 과정이 공포되었다(문교부, 1955).

제1차 교육과정에서도 중학교 사회생활과는 지리, 역사, 공민의 세 영역을 매 학년 각각 분리하여 교수하도록 한 '川'자형으로 조직되었다. 1954년 문교부령으로 공포된 시간 배당 기준령에 의하면 중학교 사회생활과는 1~2학년에 각각 175시간, 3학년에서는 총 140시간을 가르치도록 되었으나, 1955년에 공포된 문교부령 중학교 교과과정에 따르면 도의 교육을 위한 시간으로 매 학년 35시간씩 공제하여 1~2학년 각각 140시간, 3학년 105시간으로 확정되었다. 영역별로는 지리 140시간, 역사 140시간, 공민 105시간이 배당되었다. 이는 제1차 교육과정도 교수요목기처럼 사회생활과가 외형적으로는 통합 교과였지만 실제로는 지리, 역사, 공민이 별도의 교과목처럼 취급되었음을 의미한다.

교수요목기의 중학교 지리교육 목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제1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지리교육 목표가 문서로 남아 있는 지리교육 목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제1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지리교육 목표는 6가지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자연 환경과 인류 생활 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이해시킨다.”로, 이는 교수요목기부터 제시된 지리교육의 전통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연결되는 다른 지방과 다른 나라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지리교육의 또 다른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실 생활에 필요한 지리적 지식을 얻는다.”,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유효하게 이용함으로써 생활의 개선과 경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게 한다.”와 “자원을 애호하며 생산력을 증강하

게 한다.” 등 지리교육이 자연에 적응하거나 자원을 애호하는 능력을 길러 생활 여건 및 경제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기능 목표로는 “지리적 관찰의 습관과 사고력을 기른다.”고 제시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지리 학습의 유의점으로 나열식 지식 전달을 경계하고, 지역 간 비교를 통한 지역성과 과학으로서 지리 지식을 이해하도록 하며, 현실 생활과 정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리 교수-학습의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당시 지리교육은 다른 나라를 가르칠 때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서구 문명의 우수성과 민주주의 제국의 장점을 이해하도록 하며, 공산 제국의 침략성과 독재성을 철저히 인식시킨다고 제시함으로써 자국 중심적 관점이나 서구 중심적 관점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지리는 1학년에서 35시간, 2학년에서 70시간, 3학년에서 35시간을 가르치도록 시수가 배당되었다. 내용은 지역지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아시아 여러 지역」,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와 태평양」로 구성되었다.

각 대단원별은 3~6개의 중단원으로 조직되었고, 중단원별 교수 목표가 제시되었다. 대단원 「우리나라 지리」는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 ‘우리나라의 산업(一)’, ‘우리나라의 산업(二)’, ‘우리나라의 인구와 취락’,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 ‘우리나라와 세계’라는 6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중단원 ‘우리나라 각 지방’은 다시 ‘중부 지방의 생활’, ‘남부 지방의 생활’, ‘북부 지방의 생활’로 세분되었다.

표 2. 제1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생활과 주당 시간배당기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시간 배당 기준	공민 35(1)	공민 35(1)	공민 35(1)	매 학년 3영역을 모두 배우는 '川'자형 내용 조직
	지리 35(1)	지리 70(2)	지리 35(1)	
	역사 70(2)	역사 35(1)	역사 35(1)	

※() 안 숫자는 35주를 기준으로 한 주당 배당 시간임.

자료: 文敎部, 1954,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師範學校 教育課程時間配當基準令, 文敎部令 第35號.

대단원 「아시아의 여러 지역」은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로, 대단원 「유럽과 아프리카」는 ‘서구 및 남구유럽’, ‘소련 및 동구유럽’, ‘아프리카’로 세분되었다. 대단원 「아메리카와 태평양 지역」은 ‘미국 및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태평양과 오스트레일리아’로 지역 구분되었다. 「우리나라는 1학년의 35시간과 2학년의 70시간 중 전반 35시간에 걸쳐 가르치도록 되었다. 가르치는 시간으로 보면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비중이 각각 1/2로 교수요목기에 비하여 세계지리 비중이 줄어들었고, 한국지리 비중은 늘어났다.

3) 제2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과 지리교육

1963년에 제2차 교육과정이 공표되었다. 문교부가 1958년부터 제1차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5.16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교육방향 등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교육에서 정부와 체제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였고, 애국심과 반공의식 그리고 유능한 역군으로서의 국민적 자질 함양을 강조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은 이러한 권위주의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여 개발되어 1963년 2월 15일에 공표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애국심과 반공교육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반공·도덕 생활’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추가되었다.³⁾

제2차 교육과정에서 사회생활과는 사회과로, 공민은 일반사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은 국가적 사명감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국가 사회의 번영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역군이였다.

중학교 사회과 교육 목표가 새나라 건설의 의욕을 북돋우고 애국 애족의 정신과 반공 민주 국가 건설의 신념을 기르는데 있다고 명시되었다. 이처럼 사회과교육은 권위주의 정권의 의도에 따라 제2차 교육과정부터 제5차 교육과정까지 반공교육과 국민정신교육 및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주입하고 근대화로 민족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할 정책 교과로 구실을 하였다(박환이, 1998, 6-8).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조상의 불굴한 정신을 본받아 새나라 건설의 의욕을 북돋우고, 세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지위를 이해시킴으로써 애국 애족의 정신과 반공 민주 국가 건설의 신념을 기른다. -문교부, 1963, 제2차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목표 중에서-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사회는 매 학년 지리, 역사, 일반사회를 모두 가르치도록 되어 있던 기존의 ‘川’자형 구조에서 1학년에 지리, 2학년에 역사, 3학년에 일반사회를 가르치도록 하는 ‘三’자형 구조로 바뀌었다.⁴⁾ 사회과에 배당된 시수는 제1차 교육과정의 주당 4~5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소되었다. 영역별로 보면 1학년(지리), 2학년(역사)의 경우 주당 3~4시간, 3학년(일반사회)의 경우 2~4시간씩 가르치도록 하였다. 1학년에서 지리를, 2학년에서 역사를, 3학년에서는 일반사회를 가르치도록 하였기 때문에 통합 사회과는 이름뿐이었으며, 오히려 학습이 학년별로 단절되었다.

중학교 사회과교육의 목표는 지리, 역사, 공민의 영역별로 제시되지 않고 사회과라는 명칭 아래 일반 목표와 학년별 목표로 제시되었다. 일반 목표는 4가

표 3. 제2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 주당 시간배당기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시간 배당 기준	지리(3~4)	역사(3~4)	일반사회(2~4)	각 학년에 한 영역만 배우는 ‘三’자형 내용 조직

※() 안 숫자는 35주를 기준으로 한 주당 배당 시간임.
 자료: 문교부, 1963, 중학교 교육과정.

지인데, 사회과교육의 종합 목표, 일반사회교육 목표, 지리교육 목표, 역사교육 목표로 구성되었다. 종합 목표는 박정희정권이 지향한 애국 애족의 정신과 반공 민주 국가 건설의 신념을 기르는데 있었다. 세 번째 일반 목표는 지리교육의 목표로서 “자연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 지역 상호간의 의존 관계를 이해시켜, 각 지역의 특수성과 사회, 국가의 당면 문제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였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도 지리교육은 자연과 인간 생활의 관계와 지역 상호간 의존 관계 및 지역성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학년 목표로 제시된 지리교육 목표는 향토 수준, 우리나라 수준, 세계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향토 수준의 목표는 생활 무대로서 우리 향토와 우리 국토 생활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이해시켜 애향 애국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었고, 우리나라 수준의 목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자연을 통제·이용하고 자연 재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기르며, 우리나라의 자원 분포,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빈곤 극복과 경제 재건의 의욕을 고무하는 것이었다. 교수요목기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에서 자연환경의 영향력을 우위에 둔 환경결정론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면,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인간 활동의 영향력을 우위에 둔 환경기능론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세계 수준의 목표는 현대 인간 생활이 세계 여러 지역의 생활과 상호 의존 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역 구분은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한데 묶는 등 기존의 대륙별 지역 구분이 아니고 문화적인 동질성을 고려한 지역 구분이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지리와 계통지리를 고르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직함으로써 이전에 비하여 지역지리가 약화되고 계통지리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학교 지리 내용은 과거에 없었던 향토 단원이 신설되었고, 향토-각 지방 생활-우리나라 전체-세계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제2차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은 「향토 생활과 향토의 제 문제」, 「우리나라 제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 「우리나라 자연과 생활」, 「세계 제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 「세계의 자연과 생활」, 「세계와 우리나라」라는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제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과 「세계 제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단원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의 특징과 생활 모습을, 「우리나라의 자연과 생활」과 「세계의 자연과 생활」단원은 계통 지리의 주요 주제를 다루었다.

4) 제3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과 지리교육

1972년 12월 27일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고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전면 부정과 대통령에게 권력 집중 및 반대 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 봉쇄를 그 특징으로 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국력 배양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 자질을 함양하려는 유신정권의 강력한 의도에 따라 개발되었다(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8). 한편, 제3차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개정되었다(권오정·김영석, 2006, 179). 이처럼 제3차 교육과정은 한편에서는 정치적 가치를 주입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객관적 과학성을 중시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

표 4. 제3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 주당 시간배당기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시간 배당 기준	지리 105(3)	역사 70~105(2~3)	일반사회 70~105(2~3)	각 학년에 한 영역만 배운 '三'자형 내용 조직

※() 안 숫자는 35주를 기준으로 한 주당 배당 시간임.
 자료: 문교부, 1973,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 325호.

하는 등 서로 상반되고 모순된 배경 하에 개발되었다 (최용규 외, 2014, 79).

제3차 교육과정은 1973년 2월 14일에 초등학교, 8월 30일에 중학교, 이듬해 12월 31일에 고등학교의 순서로 공표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중학교에서 국사가 사회과에서 독립하였다. 그리고 제2차 교육과정에서 별도 과정으로 만들어진 ‘반공·도덕’ 과정이 중학교 모든 학년마다 주당 2시간씩 배워야 하는 교과 과정으로 편입되었다. 중학교 사회과에 배당된 시간은 국사가 별도의 교과로 독립함에 따라 1학년은 주당 3시간, 2~3학년의 경우 주당 2~3시간이 배당되었다(문교부, 1973). 내용은 1학년에 지리, 2학년에 역사(세계사), 3학년에 일반사회를 가르치도록 하는 ‘三’자형 구조를 유지하였다.

목표 설정 방식도 제2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사회과의 일반 목표가 있고 학년별 목표를 두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중학교 사회과교육의 일반 목표로 사회과교육의 종합 목표, 지리교육 목표, 역사교육 목표, 일반사회 목표, 기능 목표 등 5가지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종합 목표는 유신정권의 교육 방향에 맞게 “국가의 융성과 인류의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른다.”였다. 두 번째 일반 목표인 지리교육 목표는 “인간 생활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 각 지역 사회 생활의 특색을 이해시키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스스로 이의 해결에 공헌하려는 태도를 기른다.”였다. ‘인간 생활과 자연 환경의 관계 이해’를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사회 문제 해결력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과 달라진 일반목표는 “공간과 시간을 관련지어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찰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야에서 서서 사회적 현상을 인식하는 능력을 기른다.”라는 기능 목표로 이는 사회과 통합적 성격이 반영된 것이었다.

1학년 목표로 제시된 지리교육의 목표는 제2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향토 수준, 우리나라 수준, 세계 수준의 목표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의 지리교육은 목표로서 향토-우리나라-세계 각 지역의 지역성 파악과 도해력 및 관찰 조사 능력을 여전히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제

2차 교육과정에 명시된 애항 애국 교육, 빈곤 극복과 같은 목표가 없어지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중시한 문제해결능력을 반영하여 향토 사회와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와 그 해결 같은 목표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지리내용체계는 제2차 교육과정의 여섯 번째 대단원인 「세계와 우리나라」가 「우리의 당면 과제」로 바뀌었을 뿐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지리 내용 조직에서 변화는 우리나라와 세계 학습에 앞서 지역 구분을 하도록 한 점, 인구문제와 도시 문제의 비중이 커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 사회과 교육 연구회’에서 편찬된 중학교 사회 교과서만이 단일 종으로 출간·보급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박정일, 1979, 349).

1970년대 지리학은 논리실증주의의 영향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강조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도 가치중립적 논리실증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으로 사회과학의 탐구 방법, 사회 문제에 대한 과학적 방법의 적용 능력 및 사회과학적 지식 등을 강조하였다. 중학교 지리교육의 목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사회 문제해결력을 강조하였지만, 이에 부합한 내용을 구현하지는 못하였다.

3. 사회과교육 전개기의 중학교 지리교육

1) 제4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과 지리교육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5공화국이 출범한 후 1981년에 제4차 교육과정이 공표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문교부 편수국 주도 하에 개정되었으나, 1977년에 일명 ‘떡값 사건’으로도 불리는 ‘검인정 교과서 사건’⁵⁾으로 1978년 문교부 편수국이 해체되었다(홍운선·김재복, 1989).⁶⁾ 문교부는 국가교육과정의 정책 업무와 개발 연구 업무를 분리하여, 문교부가 정책 업

무를,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 연구를 맡도록 하였다. 그래서 제4차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와 후속하는 국정 교과서의 편찬 업무는 한국교육개발원 주도로 이루어졌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의 문교·공보위원회(이하 문공위)가 막대한 정치적 권력을 발휘하면서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의 또 다른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다(조상연·정광순, 2014, 164-165). 국보위의 문공위는 박정희정권과 달리 교육을 전두환 군사정권의 강압적인 이미지를 희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첨예한 사회문제였던 과열과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과열과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제4차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의미를 논의하는 도중 통합교과 도입이라는 의제가 구체화되었다. 이후 제4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 교과 통합이 주요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 교과목 수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국보위도 교육과정 개편 방향으로 ‘교과목 수 축소’와 ‘교과 내용 수준의 하향 조절’이라는 두 가지 지침을 담은 공문을 문교부에 전달했다(조상연·정광순, 2014).

교과연구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교과목 축소라는 지침이 있어도 이미 존재하는 교과목을 없애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기존 교과목을 그대로 둔 채 교과목 수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상 교과 통합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교과 통합 주장이 힘을 받아 국민학교 교과를 2~3개 학습군으로 묶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제4차 교육과정의 국민학교 1,2학년 교

육과정은 3개 교과군으로 묶어서 교과 시간이 배당되었다. 이들 3개 교과군은 바른 생활(도덕, 국어, 사회), 즐거운 생활(산수, 자연), 즐거운 생활(체육, 음악, 미술)이라는 명칭으로 통합교과서가 개발되었다(조상연·정광순, 2014).

제4차 교육과정부터 교과 통합이 국가 교육과정의 선진적 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여러 학문으로 이루어진 중학교 사회과에 대한 통합 요구는 점점 강해졌다. 그렇지만 당시 통합 요구에 비해 그 의미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연구나 논의는 뒷받침되지 못했다. 그래서 교육학자나 교육정책담당자들조차 교과 통합이 국민학교의 통합 교과서처럼 두 세 교과를 묶어 운영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 결과 1학년에 지리와 일반사회, 2학년에 지리와 세계사, 3학년에 일반사회와 세계사 등 학년별로 2개 학문영역이 배치되었고, 중학교에서 지리교과서는 사라졌다. 중학교 사회과 내용 조직에 있어서도 통합 개념이 학년 간·단원 간 연계성보다 상위 개념으로 작용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 학습부담 감소를 위해 수업 시간 배당이 34주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중학교에서 사회는 주당 1학년 3시간, 2~3학년 2~3시간씩 배우도록 하였다.

중학교 사회과 학문영역 간 통합 요구가 강해졌고 그에 따라 학년마다 2개 학문영역의 내용이 묶여 배치되었기 때문에 학년 목표와 학문영역 목표의 일대일 대응 구조는 사라졌다. 그래서 중학교 사회과 교과목표 중 지리교육의 독립적인 목표도 제시되지 않았다.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사회과교육 목표가 학문영역별 목표로 구분되었다면 제4차 교육과정부터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 목표로 구분되었고, 지식 목표에

표 5. 제4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 주당 시간배당기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시간 배당 기준	지리+일반사회 102(3)	지리+세계사 68~102(2~3)	일반사회+세계사 68~102(2~3)	각 학년에 2영역씩 배치 중학교 지리교과서 사라짐. 1학년 1단원 「인간과 사회」 학제적 통합 단원 신설

※() 안 숫자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주당 배당 시간임.
자료: 문교부, 1981, 중학교 교육과정.

서만 학문영역의 특성이 반영되었다. 역사교육과 결합되어 제시된 지리교육의 지식 목표는 “각 지역 생활의 특색을 자연 및 인문 환경과 관련지어 공간적으로 파악하게 한다.”로 국한되었다.

학년 목표 중 1학년과 2학년 목표로 지리교육 목표가 포함되었다. 1학년 지리교육 목표는 주로 한국지리 목표로, 2학년은 세계지리 목표와 인문지리 목표로 기술되었다. 학년 목표도 지식, 기능, 가치·태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는데, 지식 목표는 지리교육 목표로 기술된 반면, 기능이나 가치·태도 목표는 영역 통합 목표로 제시되었다.

제4차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에 「인간과 사회」라는 학제적 통합 대단원을 두었다. 지리 내용은 1학년의 8개 대단원 중 4개 대단원, 2학년의 9개 대단원 중 4개 대단원으로 조직되었다. 이는 제3차 교육과정보다 2개의 대단원이 증가한 것이다. 통합하면 학습 내용과 학습 부담이 감축된다는 주장과 상반된 결과였다.

1980년대의 한국의 지리학은 공간과학으로서 입지를 공고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지리 내용은 1학년은 한국지리를 중심으로, 2학년은 세계지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1학년 지리는 「향토의 생활」,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과 산업 활동」, 「국토 개발과 당면 과제」라는 4개의 대단원으로, 2학년 지리는 「세계의 자연 환경과 생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각 지역의 생활」, 「유럽,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 각 지역의 생활」, 「지역 간의 상호 의존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지리는 지역학습 후 계통지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세계지리는 계통지리 학습 후 지역지리 학습이 이루어

어지도록 하여 지역지리와 계통지리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였다.

2) 제5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과 지리교육

1987년에 공표된 제5차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그리고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구조 등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과 수준에서 내용 수정만을 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화 교과서의 출간이다. 제5차 교육과정에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는 지역 사회 및 각급 학교 실정과 학생 수준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었다. 실제로 국민학교 4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시·도별로 약간씩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도 사회과는 중학교 1학년에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이라는 학제적 통합 단원을 두었고, 학년마다 2개 영역을 묶어 조직하였다. 통합 단원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 융합형 통합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중단원별로 특정 학문 내용을 배치한 학제적 통합이었다. 학년별 영역 구성은 1학년에 지리와 세계사, 2학년에 세계사와 일반사회, 3학년에 일반사회와 지리로 제4차 교육과정과 약간 달라졌다.

제5차 교육과정도 사회과교육 교과 목표와 학년 목표로 구분되었고, 학년별 내용이 2~3개 학문영역의 내용이 묶여 제시되었기 때문에 지리교육의 독립적인 목표는 없었다. 사회과 교과 목표 중 지리교육 관련 목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인간과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게 한다.”로 제4차 교육과정의 자연 및 인문환경이라는 용어가 인간과 환경이라는 용어로

표 6. 제5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 주당 시간배당기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시간 배당 기준	지리+세계사 102(3)	세계사+일반사회 68~102(2~3)	일반사회+지리 68~102(2~3)	각 학년에 2영역씩 배치 1학년 1단원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 학제적 통합단원 구성

※() 안 숫자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주당 배당 시간임.

자료: 문교부, 1987,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87-7호.

대체되는 수준의 변화만 있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 보전하려는 태도를 기른다는 가치·태도 목표도 제시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 지리교육은 자연 환경을 활용이나 보존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중심 자연관이 지배적이었다.

학년 목표 중 1학년과 3학년 목표에 지리교육 관련 목표가 제시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과 달리 1학년 목표는 지역지리 목표로 향토, 우리나라, 세계 여러 지역의 지역 특성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3학년 목표는 계통지리 목표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지식을 계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지리와 계통지리를 학년 별로 분리 배치함으로써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였다. 즉, 1학년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에 관한 지역지리 학습이, 3학년에서는 자연환경, 자원과 산업, 인구와 취락 등 계통지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이 조직되었다.

1학년의 지역지리 내용은 지평확대방법에 따라 향토-우리나라-세계 순으로 「향토의 생활」,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 「유럽,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이라는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3학년 지리 내용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주민생활」, 「국토의 이용과 환경의 보전」,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 「발전하는 우리나라와 미래사회」라는 4개의 대단원으로 조직되었다. 우리나라 관련 주제는 자연환경, 자원 분포와 개발, 산업 활동과 분포, 인구와 취락이었고, 세계 관련 주제는 자연환경, 자원과 산업, 인종과 문화, 인구와 취락이었다. 「국토의 이용과 환경의 보전」에서는 국

토종합개발을 중요하게 다루었고, 「발전하는 우리나라와 미래사회」에서는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역 간 상호 협력을 강조하였다.

3) 제6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과 지리교육

제6차 교육과정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시기에 개발되어 1992년에 공표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과목 수와 학기 당 이수해야 하는 과목 수가 많아서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서 필수 과목 수와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축소를 개정 방향으로 삼았다(한명희, 1999).

제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사회과의 영역 간 통합 요구가 더욱 강해졌고, 제2차 교육과정부터 독립 교과로 편성·운영된 국사가 사회과로 다시 편입되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공통사회」라는 통합 사회 과목이 신설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 문서의 사회과 내용은 지리, 세계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사 7분법 체계로 분리 제시되었다. 국사를 포함한 사회과에 배당된 시간은 주당 1학년 3시간, 2~3학년 4시간이었다. 1학년은 지리와 세계사, 2학년은 지리, 세계사, 일반사회, 3학년은 일반사회와 지리를 배우도록 되었다. 그리고 1학년 1단원 「지역과 사회탐구」 단원은 통합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통합 단원의 개념은 여전히 특정 주제와 관련된 여러 학문 내용을 병렬적으로 묶어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사회과교육의 성격이 명시되었는데, 그 중 “올바른 사회 인식을 위하

표 7. 제6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 주당 시간배당기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시간 배당 기준	지리+세계사	(102)	지리+세계사+일반사회	(136)	일반사회+지리	(136)	국사가 사회과로 복귀 1학년 1단원 「지역과 사회 탐구」 통합단원 구성
			국사		국사		

※() 안 숫자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임.
자료: 교육부, 1992,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여 사회 생활의 경험과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등의 학문적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조직, 활용하고, 사회의 현상과 제도 등을 인식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 3분법 구조가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라는 7분법 구조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7분법 구조는 사회과교육에서 지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고등학교 사회과에서 학문영역 간 통합 요구가 더욱 강해졌고, 사회과교육의 학년 목표도 사라졌기 때문에 지리교육의 목표는 사회과교육 목표의 하위 목표로만 제시되었다. 사회과 일반 목표 중 첫 번째 목표는 “사회적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상호 관련시켜 이해하게 한다.”로 사회과 통합을 강조하였다. 지리교육과 관련된 목표는 세 번째 목표로 “각 지역의 특성을 인간과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게 하고,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하게 한다.”고 하면서 역사교육 목표와 결합되어 간단하게 언급되었다. 이처럼 통합을 강조한 제6차 사회과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의 목표는 사회 현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자연 환경적 배경을 제공하는 역할과 지역성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과 내용체계표는 지리, 세계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사라는 7분법 체계로 분리 제시되었으나, 실제적 내용은 3분법 체계에 따라 조직되었다. 지리는 1~3학년에서 모두 학습하도록 되었다. 1학년은 한국지리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리를, 2학년은 유럽,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지리를 배우도록 하였다. 3학년은 계통지리 내용으로 조직되었다.

구체적인 학년별 대단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지리는 「중부 지방의 생활」, 「남부 지방의 생활」, 「북부 지방의 생활」, 「동부 및 동남아시아의 생활」, 「남부 및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생활」이라는 5개 대단원으로, 2학년 지리는 「유럽의 생활」,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이라는 2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3학년 지리는 공업화, 도시화, 환경 문제를 묶

은 대단원 「공업화, 도시화와 환경 문제」, 인구문제와 자원문제를 주로 다룬 「자원문제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구촌 문제, 분쟁과 갈등, 국제사회에서 통일 한국 관련 주제를 다룬 「국제사회 속의 한국인」이라는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지리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 이전 교육과정과 달라졌다. 대단원별로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특징을 먼저 학습하고 해당 지역을 다시 하위 지역으로 구분하여 학습하도록 조직되었다. 이는 하위 지역의 지역성을 이해한 후 이들 지역의 이해를 결합한다면 그보다 상위 수준의 지역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중학교 지리 내용 조직의 또 다른 특징으로 사실 중심의 지역지리 내용 구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지리와 계통지리의 결합을 시도하기 위하여 지역성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주제를 추출하여 해당 지역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중부 지방의 수도권은 인구에, 제주도도 관광에, 남부아시아는 종교와 인구에 초점을 맞춰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주제 중심의 지역지리 내용 조직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시키거나 강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

4) 제7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과 지리교육

제7차 교육과정은 김영삼 정부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997년에 공포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하면 상당히 뜨거웠다. 왜냐하면 이전의 교육과정은 새롭게 공표되어도 교실 수업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었지만,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이론에 기반 한 자기주도적 학습, 수준별 교육, 수행평가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초·중·고등학교라는 학교급별 교육과정 대신에 1~10학년까지의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과 11~12학년의 선택중심교육과정 체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여 사회과에서는 1994년부터 3차 년도에 걸쳐 교육부 편수국의 주도 하에 「고등학교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 내용 구성 연

표 8. 제7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 주당 시간배당기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시간 배당 기준	지리+세계사	(102)	세계사+일반사회 국사	(102)	일반사회+지리 국사	(136)	학년별로 1개씩 총 3개의 통합단원 구성

※() 안 숫자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입.

자료: 교육부, 1997,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3].

구」가 이루어졌고, 일반사회 전공 연구자들에 의해 「고등학교 공통사회의 완전 통합 단원 구성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점에 고등학교 사회과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육부 관료, 일반사회 전공 연구자와 이를 반대하는 역사와 지리 연구자들 간의 팽팽한 긴장과 대결 양상이 전개되었다. 역사학회는 사회과 통합 논의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면서 국사와 세계사를 합쳐 역사과라는 독립 교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비록 형식적으로는 국사가 사회과교육과정에 속해 있었지만, 중학교 2~3학년에 국사라는 독립된 과목명을, 고등학교도 국사의 경우 독립된 과목명과 시수를 할당 받았다. 그것에 비하여 지리학계의 노력은 부족하였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손명철, 1999, 55-57). 역사학회의 노력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공통사회는 국사가 빠지고 지리, 세계사, 일반사회 영역만으로 구성되었다.

제7차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의 내용체계표는 제6차 교육과정의 지리, 세계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사라는 7분법 체계에서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라는 3분법 체계로 복귀되었다. 제7차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은 7학년에 ‘지역과 사회 탐구’, 8학년에 ‘현대 세계의 전개’,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9학년에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지구촌 사회와 한국’ 등 학년별로 여러 통합 단원을 두었고, 7학년에 지리와 역사, 2학년에 역사와 일반사회, 3학년에 일반사회와 지리를 배치하였다. 시간은 7~8학년의 경우 주당 3시간, 9학년에서는 주당 4시간이 배당되어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줄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의 성격을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민주적 가치와 태

도를 함양하며,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교과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과 통합의 당위성을 공고화하였다. 사회과 교육의 일반 목표에서도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시켜 이해한다.”고 하여 학문영역 간 통합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과 통합의 의미를 학문영역 간 결합뿐만 아니라 지식과 탐구 방법의 결합으로 확장시켰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과 달리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장소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며, 고장, 지방 및 국토 전체와 세계 여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라고 지리교육 지식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기능 목표와 가치·태도 목표의 경우 통합적으로 제시되었다. 기능 목표는 기존의 관찰 및 해력같은 구체적 목표가 탐구와 의사결정 및 참여와 같은 추상적 목표로 대체되었다.

지리는 7학년과 9학년에서 다루어졌는데, 7학년은 지역지리로, 9학년은 계통지리로 조직되었다. 지역 지리 내용은 각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7학년 지리 내용은 「중부 지방의 생활」, 「남부 지방의 생활」, 「북부 지방의 생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 「유럽의 생활」,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이라는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주제 중심의 지역지리 내용은 다양한 지역에 대한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 정보로 구성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온대지역,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 부유한 지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된 반면, 열대지역, 아프리카대륙, 빈곤지역 등에 관해서는 부

정적 편견을 강화하도록 구성되었다(박선미·우선영, 2009).

9학년 지리 내용은 「자원 개발과 공업 발달」, 「인구 성장과 도시 발달」, 「지구촌 사회와 한국」이라는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자원 개발과 공업 발달」에서는 ‘자원의 분포와 이동’, ‘자원 이용과 자원 문제’, ‘공업 지역과 입지 조건’, ‘공업 발달에 따른 환경 문제’를 주로 다뤘다. 「인구 성장과 도시 발달」에서는 인구 성장과 이동 및 그 유형을 살펴보고 도시 발달과 분포, 인구 및 도시 문제를 다뤘으며,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지역 간 상호작용의 변화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 지리학의 연구 관점과 주제가 다양화 되고, 저변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교육 내용은 여전히 지역지리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계통지리 내용도 당시 지리학의 담론을 형성하였던 인간행태론적 관점이나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4. 사회과교육 정체성 혼란기의 중학교 지리교육

1) 2007 개정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교육 과정과 지리교육

2007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논의는 주5일 수업제의 도입에 따른 수업 일수와 전체 수업 시수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졌다(허경철 외, 2005). 2007 개정교육과정은 변화 속도가 빨라진 현대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제7차 교육과정까지 전면적·주기적으로 개정된 방식과 달리 기존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사회적 요구를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분 수시 개정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부분 수시 개정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서 수시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꾼다는 것인데, 사회적 요구라는 것이 아주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임의로 개정하는 것으로 악용되었다. 실

제로 2007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은 원안을 포함해서 네 차례 개정되었다.

교육과정 개정 체제가 수시 부분 개정으로 변경되면서 사회과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긴장과 갈등의 발생 빈도가 늘어났고, 교육과정의 본질적인 질문인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보다 ‘어느 영역이 더 많은 시수를 확보하여 가르칠 것인가?’가 주된 논쟁이 되어 버렸다(강대현·모경환, 2013, 16-17). 2007 개정 교육과정 작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회과의 통합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중학교에서는 학문영역의 분리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일반사회와 지리의 학기별 분리와 교과서 분리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류재택 외, 2004). 실제로 중학교 사회과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한다는 명분하에 세계사가 국사와 결합하여 역사라는 과목으로 독립해 나가자 지리와 일반사회만으로 구성되었다. 지리와 일반사회만으로 구성된 사회는 1학년 주당 3시간, 3학년 주당 2시간씩 배우도록 되었다.⁷⁾ 그리고 제3차 교육과정부터 중학교 사회과에 제시된 학제적 통합 단원이 없어졌다.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중학교 사회에서 역사 영역이 빠지면서 통합 사회과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학문영역별 독자성을 보장하라는 주장 또한 강해졌다. 진시원·이종미(2008) 등 많은 사회과교육 연구자들은 역사가 사회과에서 실질적으로 분리되고, 지리와 일반사회만으로 꾸려진 2007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을 사회과 통합의 실질적인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통합 사회과의 불편한 한 지붕 세 가족 동거를 정리하고, 개별 분과학문 체제로 이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역사의 독립으로 사회과 통합이라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지리교육은 지역지리 중심의 단원 구성을 없애고 지리학의 학문 추세를 반영하고 현실 공간에 대한 정합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리 개념과 주제 중심으로 모든 대단원을 구성하였다. 각 단원의 내용으로 일상적 소재나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일어나는 지리적 문제나 쟁점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표 9. 2007 개정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 주당 시간배당기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시간 배당 기준	지리+일반사회(3)	.	지리+일반사회(3)	국사와 세계사가 역사로 과목독립 지리와 일반사회로만 내용 조직

※() 안 숫자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주당 배당 시간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3].

학년별 내용을 살펴보면 1학년 지리는 「내가 사는 세계」, 「다양한 기후 지역과 주민 생활」, 「다양한 지형과 주민 생활」, 「지역마다 다른 문화」, 「인구변화와 인구 문제」,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라는 6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내가 사는 세계」는 지리 학습에 필요한 세계 주요 국가나 지형의 위치, 경·위도의 의미, 각 국가의 형태와 크기 등을 학습하도록 조직되었다. 그리고 그 외 단원은 기후학, 지형학, 문화지리학, 인구지리학, 도시지리학 등 지리학의 주요 학문 분야를 단원명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3학년 지리는 「자원의 개발과 이용」, 「산업 활동과 지역 변화」, 「지역에 따라 다른 환경 문제」, 「세계 속의 우리나라」, 「통일한국의 미래」라는 5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단원도 경제지리학, 환경지리학, 정치지리학 등의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렇지만 지리학의 체계적 지식 구조에 따라 대단원을 조직하였다고 할 지라도 그 주제가 잘 드러나는 지역을 선정하여 전개하는 방식으로 체계지리와 지역지리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또한 각 개념이나 주제에 대한 지역 간 차이를 강조하였고, 해당 주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세계를 비교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2)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과 지리교육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에 교육과정을 개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9년 12월에 2009 개정교육과정 방향을 고시하였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교육 내용의 잦은 반복을 피하자는 명분으로 국민공통교육과정을 1~10학년에서 1~9학년으로 축소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선

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다. 국민공통교육과정 ‘사회’는 중학교 3학년에서 종결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사라졌다. 이밖에도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제와 교과군제 및 집중이수제 등 교육과정 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년군제는 기존의 학년별 교과별 수업 시수 배당 방식에서 탈피하여 단위 학교에서 교과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시수를 학년군별로 자율적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초등학교는 2개 학년씩 하나의 학년군으로 묶고, 중학교의 경우는 3개 학년을 1개 학년군으로 묶었다. 그래서 2007 개정교육과정과 달리 학년군별로 총 시수만 제시되었고, 지역교육청과 학교별로 20%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학교는 수학과 영어 시수를 늘리는 반면 사회를 포함한 다른 교과의 수업 시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었다.

교과군제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명분하에 도입되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경우 교과군으로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이 제시되었다. 이는 제2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에 관한 아이디어와 유사한 것이다. 사회와 도덕은 하나의 교과군으로 묶여 교육과정에 사회(역사 포함)/도덕으로 표기되었다. 중학교 역사와 도덕은 과목 수준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지리와 일반사회는 통합하여 사회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사회, 역사, 도덕을 묶어 사회과로 통칭하여 7~9학년에서 510시간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많은 중학교 현장에서는 사회과에 주어진 510시간을 사회, 역사, 도덕이 1/3씩 나누어 각각 170시간씩 가르치는 것으

표 10. 2009 개정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 주당 시간배당기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시간 배당 기준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시간)			학년군제와 교과군제 및 집중이수제 도입 지리와 일반사회로만 내용 조직 고1사회가 공통교육과정에서 제외

※() 안 숫자는 7~9학년 사회(역사 포함)/도덕에 배당된 총 시수를 의미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로 해석하였다. 지리와 일반사회는 사회에 배당된 170시간을 다시 1/2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중학교에서 지리와 일반사회 시수는 현저하게 줄었다. 그리고 고1 사회가 국민공통과목에서 제외됨으로써 고1 사회에서 다루었던 주요 내용이 중학교 사회 내용으로 내려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가중되었다.⁸⁾ 사회과 중에서도 통합구조에서 더 많은 시수를 확보하기 위한 학문영역 간 싸움이 가장 극렬하게 전개된 중학교 사회의 경우, 고1 사회의 폐지까지 더해져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 모두 대단원 수가 증가하였다. 2009 개정 중학교 지리는 2007 개정교육과정보다 대단원 수가 3개 증가하여 14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고, 일반사회는 5개가 증가하여 14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를 이루겠다는 명분하에 집중이수제를 확대·도입하였다. 집중이수제는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특정 교과를 집중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과는 집중이수제로 인하여 사회 수업과 교사 운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집중이수제가 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중학교의 경우 의무적으로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제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많은 중학교에서 국어, 수학, 과학, 체육, 영어의 경우 집중이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회·도덕 교과군은 집중이수제를 적용하였다. 학습 내용이 많아진 사회를 집중이수제로 운영하다보니 교사는 진도 나가기에 급급했고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할 시간이 적어 사회 학습의 흥미와 효율성이 떨어졌다(박창

언·오은수·차철표, 2013, 1227-1228).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제적 통합보다는 학문 내 통합을 지향하였다. 즉 지리학 내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통합,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통합 등을 시도하였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사회과교육 목표 중 지리교육에 해당되는 목표를 “지표 공간의 자연 및 인문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지리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지리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자연 및 인문환경의 이해를 통한 지역성 이해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하였다.

지리적 문제해결능력이라는 용어 사용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가 크다. 제7차 교육과정이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고차사고능력의 경우 보편적 사고 기능이나 성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제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사용되어 왔었다. 그런데 지리적 문제해결능력이라는 용어는 문제해결능력이 보편적 사고 기능이나 성향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사고 과정과 지식을 통해 길러지는 것으로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제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통합론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1~3학년> 지리 영역의 목표가 별도로 제시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지리교육 목표는 다양한 지역의 이해보다는 계통지리 주제나 개념 및 그들 간 관계의 공간적 이해를 강조하였다.

7~9학년의 지리 내용은 「내가 사는 세계」,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 「인구 변화

와 인구 문제,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자원의 개발과 이용」,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우리나라의 영토」, 「통일 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이라는 14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학교 지리 내용으로 세계화에 따른 지역 간 상호작용과 공간 변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 변화를 추동하였던 동인과 그에 따른 다층적 권력 관계와 통제 과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지리학의 전통적 지식보다 GMO, 로컬푸드 등 학생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는 지역의 고유성을 파악하는 지역지리 연구보다는 세계화로 인한 지역 간 상호작용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공간 변화에 주목하는 지리학계 연구 경향을 반영한 결과였고, 지역학습에 관점에 깔려 있는 중심-주변, 보편-특수라는 이원적 대립 구조의 한계를 깨면서도 주제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통합하기 위한 지리교육계의 자구책이었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과 지리교육

2015 개정 사회과교육과정⁹⁾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개정 방향으로 삼았다. 2015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도입과 고등학교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신설이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은 2009 개정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역사 포함)/도덕으로 표기되었고, 중학교 1~3학년에서 510시간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7~9학년의 지리 내용은 「내가 사는 세계」,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글로벌 경제 활동과 지역 변화」,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세계 속의 우리나라」, 「더불어 사는 세계」라는 12개 대단원으로 조직되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과 「극한지역에서의 생활」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단원으로 통합되었고, 2009개정 교육과정의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우리나라의 영토」, 「통일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단원이 「세계 속의 우리나라」, 「더불어 사는 세계」라는 2개의 단원으로 재구성되면서 2009개정 교육과정보다 대단원 수가 2개 줄었다. 이처럼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14개이었던 대단원 수가 12개로 감축된 이유는 학습 부담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불만과 더불어 교육부와 교육과정 총론 팀의 끈질긴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지리교육은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지리 문제와 쟁점에 관심을 갖는 것을 강조하였고,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 내포된 공간 구조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비판적인 지리적 사고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표 11. 2015 개정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 주당 시간배당기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시간 배당 기준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시간)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지리와 일반사회로만 내용 조직 고1 통합사회 과목 신설

※() 안 숫자는 7~9학년 사회(역사 포함)/도덕에 배당된 총 시수를 의미함.
자료: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별책 1].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지리교육 내용으로 빈곤이나 분쟁 발생 요인, 공간적 불평등 기제 등의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나 쟁점 중심의 내용 구성은 일반사회 내용과 중복될 수 있다며 통합 단원을 구성하라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박선미, 2016).

5. 결론

한국의 사회과교육은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사회생활과라는 통합교과로 탄생하였다. 당시 통합의 의미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제3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사회과교육의 지리, 역사, 일반사회는 분과적으로 운영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교과목수 축소 방안은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으로 연결되었다. 교육학자들은 학습자의 학습 부담 축소라는 매력적인 논리로 통합교육과정을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믿도록 하였고, 이런 분위기에서 분과적으로 운영되던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통합하라는 요구가 강해졌다.

그래서 제4차 교육과정부터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은 두개 이상의 학문영역을 한 학년에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통합되었고, 학문영역 간 통합 대 단원도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 지리, 역사, 일반사회 내용의 중단원을 결합하여 만든 학제적 통합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부담 감축을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부와 사회과 통합구조에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특정 영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통합 요구는 더욱 강해졌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3분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7분체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매 학년마다 학제적 통합 단원을 두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역사교육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앞세운 역사학회의 통합 반대 주장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현재까지 역사가 사회과교육과정으로부터 과목 독립하였고, 학년마다 배치되었던 학제적 통합 단원도 사라졌다. 이처럼 통합

교과로서 사회과 정체성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지리와 일반사회만으로 구성된 중학교 사회과의 기형적 통합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통합은 학문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학제적 통합 단원 구성의 한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학문영역을 융합하여 새로운 단원을 만들어 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학문 체계를 대신하여 내용을 선정하거나 조직할 이론적·방법론적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이야말로 통합 교육과정이 개발되거나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형태로나마 통합교육과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합이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감축시키고 다양한 지식을 학생의 생활과 조화롭게 연계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렇지만 교수요목기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할수록 학습량이 감축되고 지식과 학생 경험이 연계된다는 신념에 근거가 없다. 사회과 통합에 대한 요구와 시수를 둘러싼 논쟁이 강할수록 여러 학문으로 구성된 사회과 통합구조에 각 학문의 내용을 더 많이 집어넣으려는 경쟁 또한 치열해져 학습자가 배워야 할 학습량은 증가했다.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과 교사들까지도 과도한 사회과 내용 분량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한편, 중학교 통합사회과의 구조는 지리학의 빠른 변화를 지리교육에 담아내지 못해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간극을 더욱 벌렸고, 교육 내용과 학생 경험의 괴리도 심각해졌다. 지리학은 관점이 유연해졌고 공간 영역이 다양해졌으며 연구 주제 또한 생활과 밀접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통합이 강화된 제4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지리교육 목표가 별도로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리학의 새로운 학문 추세나 탐구 주제를 지리교육 목표로 반영할 여지도 없었다. 통합 요구가 약해진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중학교 지리교육의 목표는 지리학의 학문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 학생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지리적 문제와 쟁점에 대한 관심과 인식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설정되기 시작하였다.

통합 교육과정은 중학교 지리교육 내용 조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학문중심교육과정인 제3차 교육과정의 지리교육 내용은 지리학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렇지만 제4차 교육과정부터 통합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중학교 지리교육은 타 영역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지리를 고수하였고 지역지리와 계통지리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를 해 왔다. 지역지리의 사실 위주의 내용 구성은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고 진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주제 중심의 지역지리 내용 구성은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통합 부담으로부터 약간이나마 벗어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중학교 지리교육은 세계화에 따른 공간적 상호작용과 공간 변화, 지역 불평등, 생활 속 환경 쟁점 등 최근 지리학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를 교육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구성이 일반사회 내용과의 통합 밑미를 줄 수 있다며 다시 지역지리 중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통합 논리는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조직의 상위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미 있는 지리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교육계는 과목 수가 많아지면 학습 부담도 증가한다는 통합론자의 논리에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리교육만으로도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지리교육 내용을 학습자가 살아가는 세계와 연계시키고 학습자가 진정으로 지리 학습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리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

1) 이때 발표된 교수요목은 학교급별 교과 편제, 시간 배당과

교육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교수요목이 적용된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시기를 교수요목기라고 한다. 1946년 교수요목집에서는 ‘교수요목’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교과마다 차이가 컸다. 예컨대, 산수과는 교과의 내용만을 간단하게 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어과, 사회생활과 등은 교과의 목적, 지도 방침, (교수요목) 활용가이드, 그리고 지도상의 유의점(‘교수에 관한 주의’)과 교육내용으로 ‘교수 사항’을 제시하였다(김진숙, 2012, 39).

- 2) 미군정 시기 학무국 편수국장 고문관이었던 미국 콜로라도주 출신 앤더슨 대위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교과목들을 종합해서 사회생활과 교과목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그의 제안대로 교수요목에 사회생활과가 도입되었다(박정일, 1979, 333).
- 3) 중학교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교과활동, 반공·도덕생활, 특별활동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
- 4) 중학교 사회과에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와 같은 영역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학년별로 학습 내용 영역을 달리 편성하였다.
- 5) 1977년 3월 16일에 발생한 김인정 교과서 보급을 둘러싼 비리 사건이다. 이로 인해 문교부 편수 관련 직원 7명, 세무공무원 4명, 한국검인정교과서 관련자 등을 포함해서 13명이 구속되었다.
- 6) 1980년에 다시 부활되었다가, 1981년 다시 장학편수실로 개편되었으나 그 위상은 격하되었다.
- 7) 역사는 2학년에 주당 3시간, 3학년에 주당 2시간으로 사회와 동일한 시수를 배당받았다.
- 8) 당시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진 간에는 고 1사회 내용을 중학교 사회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싸고, 중학생들의 학습량 증가에 따른 파행적 운영이 예견된다는 의견과 중학교 사회과 중 윤리나 역사 영역에 비하여 교육 내용이나 단원 수가 적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일반사회 연구책임자가 중학교 사회에 고 1사회 일반사회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리가 시수 싸움에서 밀릴 것을 염려하여 중학교 지리도 고 1 사회의 지리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결과 중학교 사회 내용은 고등학교 사회의 지리와 일반사회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여 과다해졌다.
- 9) 2015 개정교육과정은 초기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불리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기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참고문헌

- 강대현, 2015,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양상-교수요목기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사회과 교육, 54(1), 63-89.
- 강대현·모경환, 2013,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과 양상-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와 실천, 79, 1-23.
- 곽한영, 2010, “초기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의 양상에 관한 연구-교수요목기 공민1 교과서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5(2), 1-23.
- 권오정·김영석, 2006, 사회과교육학의 구조와 쟁점, 교육과학사.
- 김종진, 2007,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통합교육과정연구, 1, 152-173.
- 김진숙, 2012, “일제강점기부터 제1차 교육과정기 교육과정 문서 체계 분석-총론과 교과의 분화와 독립-,” 한국교육사학, 34(1), 27-55.
- 류재택·최석진·진재관·박선미·강대현·은지용, 2004, 사회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4-4-5.
- 박광희, 1963, 한국 사회과 성립과정과 그 과정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미, 2016, “2015 개정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33-45.
- 박선미·우선영, 2009,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국가별 스테레오타입-제7차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중 일반 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8(4), 19-34.
- 박정일, 1979, “사회과 지리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45~1975,” 지리학과 지리교육, 9, 332-353.
- 박창언·오은수·차철표, 2013, “교과목 집중이수제 연구: 사회-도덕 교과군을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25(5), 1224-1237.
- 박환이, 1998, “한국 사회과교육의 회고,” 사회과교육, 31, 3-15.
- 손명철, 1999,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하나의 대안,” 지리·환경교육, 7(1), 51-65.
- 심광택, 2015, “지리교육의 연구 동향과 연구영역별 성과 분석-대한지리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3), 87-100.
- 심승희, 2008, “우리나라 초등 지리교육과정의 변화: 환경확대법의 적용과 지역 기술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4), 347-364.
- 심풍언, 1986, “고등학교 지리과 교육과정의 연구,” 지리교육논집, 17, 22-53.
- 안중옥, 2011, “1950년대 지학의 등장과 지리교육과정의 변화,” 한국지형학회지, 18(2), 81-98.
- 안중옥, 2012, “고등학교 「경제지리」 과목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3), 33-48.
- 조상연·정광순, 2014,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초등학교 통합교과 생성 과정 고찰,” 초등교육연구, 27(1), 157-185.
- 조성욱, 2014, “초중등 지리교육 내용 구성 방법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1), 95-110.
- 진시원·이종미, 2008,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통합 사회과의 미래,” 시민교육연구, 40(2), 223-243.
- 최용규·정호범·김영석·박남수·박용조, 2014,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수업까지, 교육과학사.
-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8,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1998 교육부 위탁연구과제 답신보고서.
- 한명희, 1999, “21세기 한국의 교육학: 현재성의 반성과 비판에 기초하여,” 교육학연구, 37(4), 29-48.
- 허경철·박순경·이광우·이미숙·정영근·김진숙·민용성·김두정, 200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CRC 2005-6.
- 홍용선, 1992, “최초의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의 특징,” 한국교육, 19, 23-46.
- 홍용선·김재복, 1989, “한국 교육과정의 생성과정에 대한 재조명,” 통합교과 및 특별활동연구, 5(1), 137-278.
- 〈교육과정〉
- 군정청 문교부, 1943, 초중등학교 각과 교수요목집(4), 국민학교 사회생활과.
- 文敎部, 1954,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師範學校 敎育課程時間配當基準令, 文敎部令 第35號.
- 문교부, 1955, 중학교 교과과정, 문교부령 제45호 별책.

- 문교부, 1963, 중학교 교육과정.
- 문교부, 1973,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25호.
- 문교부, 1981, 중학교 교육과정.
- 문교부, 1987,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87-7호.
- 교육부, 1992,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 교육부, 1997,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3].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3].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별책 7].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7].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별책 7].
- 교육부,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별책 1].
- 교신: 박선미,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이메일: sminha@inha.ac.kr)
- Correspondence: Sunmee Park,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nha University, 100 Inharo, Nam-gu Incheon 22212, Korea (e-mail: sminha@inha.ac.kr)

최초투고일 2016. 11. 23

수정일 2016. 12. 4

최종접수일 2016. 12. 19